

Robert Yarbrough 박사, 목회서신, 세션 10, 디모데후서 2:22-3:17

© 2024 로버트 야브로(Robert Yarbrough)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에 대해 강의하는 로버트 W. 야브로 박사(Dr. Robert W. Yarbrough)입니다. 10회, 디모데후서 2:22-3:17.

우리는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지침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NIV 제목에 따라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다루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그는 이 장의 앞 부분과 마찬가지로 군인, 운동선수, 농부에 대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는 냄비, 쓰레기통, 용기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릇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일반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꽃병이나 꽃을 위한 꽃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큰 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종류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런 것, 쓰는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특별한 목적에 쓰는 도구가 되어 거룩하고 주인에게 유용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리고 그는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고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긍정적 윤리라고 부른다. 육체를 죽이는 것은 단지 잘못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돌이켜 속히 회개하고 선을 추구함으로써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즉, 온전한 의미에서 교회에 참여하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시오. 어리석고 어리석은 논쟁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분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소년, 그렇게 어렵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상대방은 부드럽게 지시를 받아야합니다.

사실 거기에는 최소한 숨겨진 명령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온유하게 교훈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깨어나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그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관찰 내용과 저는 관찰 내용뿐만 아니라 구절도 볼 수 있도록 여기에서 화면을 분할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 알았어, 관찰해봐. 20절과 21절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생각납니다. 바울은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말하는데, 너희에게는 귀가 있고 눈이 있으나 귀는 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눈에게는 너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눈은 발에게 너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 신체 부위가 있지만 그것들도 꽤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모든 사람을 확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저는 '모든 종류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때때로 미국 영어에서 우리는 대략적이거나 주변적인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이것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종류의 일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 사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우리가 쓰레기통이 되지 말고 꽃병이 되도록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남에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유용하게 쓰이느니라 여기서는 전제군주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니 이는 집주인을 가리킴이라. 그는 주인에게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단락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것은 은유이다. 그것은 22와 그 이후를 위한 기반을 준비하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분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거룩함을 재확인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도망쳐 추격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체를 부인하고 무시합니다. 실제로 말하면, 자녀가 있고, 학생이 있고,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약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그들이 발견하게 될 은혜의 수단은 그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쏟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죄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충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은 드라이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기에 있어.

그것은 당신의 메이크업의 일부입니다. 좋아요, 어떻게 그 추진력을 거룩한 목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논쟁을 피하려는 열망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일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쳤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일을 하게 만드는 추진력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디모데를 향해 도망가는 그 에너지를 저항하고 굳건히 서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간섭하기 위해 재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의에는 젊은이들의 악한 욕망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충동을 돌이킬 수 있는 많은 지혜와 기민함이 있습니다. 셋째, 갈등을 처리하는 것이 까다롭다. 그리고 23절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다툼을 낳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다루려면 가르칠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가르 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선의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그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지시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는 것과 항상 결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말은, 가끔 선생님들이 꽤 가혹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때때로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해 꽤 냉담합니다.

그들은 주로 자신의 주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글썄요, 그들은 절제와 친절, 원한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회심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온화함과 복음적인 동정심과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목표는 사람들의 구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인도되어 멸망할 수도 있다면,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 속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회개를 진정으로 원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면 제 일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심해졌던 고난주간을 공부해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1 베드로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크게 지적합니다. 그는 교사요 목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은 일을 행하는 일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는 그것을 디모데라는 목사와는 다른 관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투지 않고 친절하고 가르칠 수 있고 분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억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억제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일부 교류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쓴 것, 내가 받은 반응이 옳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생산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다루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짓 교사라는 제목 아래 있습니다.

NIV에서는 이것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그리스어로 '알다', '알다'라는 단어의 5~6가지 용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끔찍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일은 다시 디모데전서를 반영하며, 마지막 날은 지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선한 자, 배신하는 자, 경솔한 자, 자만하는 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자니 이것이 다 요약이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일종의 경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는 매우 다른 행동을 초래하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특성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런 종류의 특성은 그들의 삶에서 상대적으로 드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우리 삶의 지배적인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표시하세요.

이것을 표시하세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올 것인데, 내 생각에 그는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님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지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건의 한 형태와 같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고 나는 교회에 다닌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공연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을 피하세요. 그런 다음 그는 추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집에 몰래 들어가 죄를 중히 여기고 온갖 악한 정욕에 사로잡힌 순진한 여자들을 조종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또 이들은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여자들이요, 또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여 그들을 미혹하는 선생들이니라. 야니스와 암브레가 모세를 반대한 것처럼 이 교사들도 진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재앙이 닥쳐오고 마술사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저주로 재앙의 효과를 만들어 내려고 했을 때 유대 문헌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야니게와 암브레는 바로 앞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두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들을 모세 시대의 야니게와 암브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관한 한 버림받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Janice와 Jambres의 경우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멀리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 관찰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한 가지 도전은 세상의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렸지만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죄 많은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는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르시되 나의 세례를 허락하라 이는 한 번역의 말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삶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려면 나는 죄 많은 이스라엘과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녀가 대표하는 세리들보다 더 미움을 받는 사람들과 어깨를 비비시는 것을 봅니다. 그는 앉아서 모든 것을 세리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우리가 그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장관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독신이라는 이유로 결국 자살한 목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HIV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 HIV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목숨을 끊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것이 그의 수치심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자 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도 당신은 누구를 제자화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죄인을 제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자라면 아마도 어떤 영역에서는 거룩하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방향으로 움직일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교회 안에 있고 확실히 교회 밖에도 만연해 있고 종교를 갖게 되는 사람들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목사로서 이들을 전우로 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때로는 눈에 띄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찾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돕다. 그들은 확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교회 외부의 움직임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교회의 일을 더 잘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범퍼 스티커를 많이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Deed Before Creed라는 범퍼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교회 주위에 서서 내가 믿는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당신이 교파 학자라면 장로교인들이 개혁 유산이라는 유산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개혁 유산은 교회가 추구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구석구석, 구석구석까지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이 고귀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식별할 위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려면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셔야 했지만, 그들에게 속지 않으셨고, 그분을 속이고 논쟁을 벌이는 모든 반대자들에게 확신을 가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뭔가를 알고 있고, 당신의 요점이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스크립트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옹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으며 그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을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을 악덕 목록이라고 하며 고대 문학에는 이러한 목록을 쓴 작가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한지에 대해 일종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것을 읽어야 하는 방식은 진단적이며, 최후의 만찬에 참석한 제자들처럼, 주님, 저입니까?라고 말해야 합니다. 적어도 여기저기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서 나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길을 반성하고 비방하듯 정직하게 대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 누군가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비방은 사역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할 때는 사람을 다루어야 하고, 직원이 있으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인격 암살과 동기에 대한 추측에 빠져들기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불쾌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룰 때 태도와 말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독선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 부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5~1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것들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한 목회적 리더십, 지혜로운 목회적 리더십, 배반을 묵인하는 안네와 암브레가 배반자들을 기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착취자들의 음모적인 배반은 폭로되고 무력화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디모데야, 당신은 가짜 경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별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특히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는 배운다고 해서 그 대가로 비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분리되어야 하며 그런 사람들과 아무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효과를 폭로하고 무력화시키는 긍정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3장 6절부터 9절까지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 쉬운 여성을 통제하고 여기서 우리는 사악한 욕망을 얻습니다. 그것은 간음이나 불법 활동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기독교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상황에 대해 정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에 있는 세계 기독교의 60%는 숫자로 볼 때 카톨릭이고,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은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권 안에 얼마나 많은 성적인 죄가 있음이 입증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기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오하고 깊이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천두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세대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성직자들의 수입입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며, 가톨릭교의 가르침이 대체로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두렵습니다.

나는 가톨릭 기독교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톨릭 교회 안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티칸이 인정한 것처럼 세계 여러 곳에서 공개적인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방식으로 소년이나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사제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교회의 문제이고, 보수 교회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있을 것이고, 이 교회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같이 자면 안되는 사람과 동침한 교회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명의 여성이 동일 인물이나 다양한 교회 직원과 관계를 맺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모호하고 낯설게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모세가 있고 신화적인 Jannes와 Jambres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흐릿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생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충실하더라도 인터넷의 모든 문제와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포르노 중독 문제를 안고 있는 매우 감각적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교회 직원들도 많이 포함되어 마음이 썩고, 결국으로 성적인 죄로 인격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아마도 적어도 서구의 많은 분야에서 설교의 무력함과 설교 준비의 공허함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는 부패로 인해 영혼과 마음이 앓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 내가 읽은 것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신학생들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경건을 공언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악화시키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신학생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음란물을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회에 매우 강력한 말입니다. 가상 세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즉, 전기가 없는 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전기가 없는 곳이라도 대부분 태양열 집열기가 있어서 송전선이 없더라도 여전히 전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구와 연관시키는 쇠퇴는 사실 모든 인류의 쇠퇴라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 소년 학대는 현실입니다. 이는 이슬람 자체 때문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와 죄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나타나는 부패의 형태는 그릇된 욕망의 표현입니다. 지도.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다루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디모데에 대한 마지막 명령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3장 10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우리가 그것을 끝낼 시간이 있고 아직 감당할 수 있는 길이로 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강조합니다.

그는 인칭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에서는 동사에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는 실제로 sigma, upsilon, su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가르침과 생활방식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기에 넣지 않아서 너무 기뻐요. 고통.

그는 단지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과의 관계를 버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말하려는 것은 복음이 나에게 밤낮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만큼, 나는 그것이 야기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리스트라에서 내가 겪은 일들과 핍박을 받은 일들. 이제 이것은 그가 언급한 모든 장소가 모두 디모데가 자란 장소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디모데는 리스트라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그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데가볼리와 그 모든 지역을 관할했던 로마 지방의 수도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약 12개의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요, 로마 갈라디아 속주로 들어가는 입구 같았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과 리스트라는 로마의 갈라디아 속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몇 년 동안 사역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역을 더 많이 할수록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고 꽤 좋은 추종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유대인 반대자들은 더욱 그들을 반대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마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고는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 언어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섹션에서 그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신성 모독자, 폭력자, 살인자에서 변화시킨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도 방금 말한 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제 그는 돌아서서 말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A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2절에서 그것을 확장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NIV는 이를 조금 확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행악자와 사기꾼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인 척하거나 경건한 척 하지만 사실이 아닌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고 속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이에 티모시가 있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어도 경건의 모양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행악자들과 사기꾼들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와 속는 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Paul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붙들어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울타리의 어느 쪽에 서고 싶은가?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3.10으로 돌아가게 하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계속하라고 14절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배운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다윗에게 언약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성경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알았는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라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고, 해석하고, 회당에서 기도하고, 식사 시간과 예식을 통해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가정들, 하나님께서는 증인 없이 떠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디모데는 그러한 가정에 거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아기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구속의 진리를 교육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1차 전도여행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것은 그대로 좋았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티모시는 그의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이 놀라운 전환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깨끗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결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영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분의 승천을 되돌아볼 수 있고 바울은 성경의 힘에 대해 묵상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관해 보는 내용으로부터 추론해 보면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영감에 관한 매우 분명한 진술이다. 영감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며 실제로 영감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을 내쉬었다는 뜻,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내쉬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특히 라틴어 전통에서 영감은 라틴어 기반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영어에 들어왔고, 아시다시피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을 내쉬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미지만큼 생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더 유기적일 수 없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보다 더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 페이지에 적힌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성경 전체에 적용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는 데 유익합니다. 훈련과 의를 뜻하는 헬라어에는 맞지 않습니다.

네, 일종의 4중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대표성이 있고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 너희 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역하고 싶은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디모데가 자신에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디모데전서 끝부분에서 이미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IV는 이 단어가 성별에 따라 특정하게 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거기에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나 사람 대신에 종을 번역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의한 사도적 신실함이 미래의 모든 제자, 특히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들을 위해 성전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나는 10-11절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어떤 일을 통해 인도하셔야 할 것이고 바울은 그를 격려하거나 간섭하기 위해 거기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고통스러웠던 만큼, 티모시가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이 모든 일을 겪었으며 일부는 죽은 것으로 남겨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것에서 구원하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비탄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절당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체포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아? 지금 감옥에 있는 전 세계 목회자들이나 목사가 아닌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한 나라에 있을 때 보안 단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제 통역사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지 경건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지 사람들이 그 언어로 된 나의 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10장과 11장을 읽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들의 간증 전체에 걸쳐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름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PTSD라고 부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에 너무나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가 무질서한 개인이었다는 징후를 많이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비틀고 변형시킬 수 있지만 또한 매우 깊은 지혜와 심오한 진정성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풀은 미친 사람이 아니 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고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나 충격적이라는 이유로 박해와 고통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들로부터 살아남아 또 다른 날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문을 당한 사람들 주변에 있었고, 당신도 알다시피 그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매우 생산적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역하는 어둠이 있지만 그것은

극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부동 마비와 같은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그들이 고문을 당했을 때의 상태에 끌려가게 된다면. 제가 사역하던 상황에 한 사람의 눈이 저쪽으로 가고 또 저쪽으로 눈이 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우리 컨퍼런스에서 가끔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려 팔로 감싸고 말을 걸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에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느냐고 하더군요. 글썄, 그들은 그를 심하게 고문했고 그는 다시는 옳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이나 고린도후서 3장을 읽으면 고린도후서 11장 36절 정도가 나오는데 12장까지 보면 바울이 세 번, 예를 들어 39번의 채찍질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많은 일을 겪었고 그 일을 통해서도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항상 살해당하는 지역에 들어가고 있고,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 살해당하는 지역에 있을 수 있으며 우리는 필사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내실 수 있다는 간증에 대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인정하고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권위자들과 대결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결정을 계속해서 기꺼이 내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즐겁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것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이것을 설명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Timothy가 그 지역의 어린 시절이었고 그가 들어봤지만 아마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경우 Timothy에게 그레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르침과 박해, 그리고 너희 고향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 할머니, 어쩌면 디모데가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생생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12절과 관련하여 미래의 모든 제자를 위한 템플릿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어느 시점에 박해로 분류될 만한 어떤 형태와 수준의 반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름과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도 있고, 만성적일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신고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일부 국가에서 기독교인을 쫓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밀고자들은 신고하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사람들을 찾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알고 있는 경전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현대 세계를 볼 때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발견하는 경멸,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도 경멸을 볼 때, 교회가 좋아하지 않는 성경의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그것을 바꿉니다.

저는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평등위원회 같은 곳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성애자 및 여성의 안수를 긍정하고 성경 전체를 번역했지만 거기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가톨릭 그룹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고 모두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없고 단지 많은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주님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존재입니다. 성경은 현대 교회에서 평가절하되어 있지만 바울에게는 신실한 섬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높은 견해의 유산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매주 교회에서 그토록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죽은 전통이 아닙니다. 창의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게 아니라 왜 우리는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없는 걸까요? 이것은 교회가 정체된 무작위 활동과 같지 않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도 나를 떠나시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근원은 없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든, 매주 이야기하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신선한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종이 되도록 깊은 교육을 받고 깊은 부르심과 깊은 은사를 받은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이코노미아 (oikonomia)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한 구조를 갖고 계시고 그 구조 속에서 우리 영혼을 위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바로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도구는 성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유익합니다.

유용합니다.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책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정에는 더 부정적입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긍정적이다. 우리는 교정 중입니다.

그리고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은 아이를 훈계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독일 셰퍼드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듣는 것과 행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의의 교육을 하게 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여자, 곧 하나님의 종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두 구절에는 우리가 기독교 제자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성배가 있습니다.

기독교 제자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제자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단지 선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뿐 아니라 온전하게 갖추느니라. 때로는 그 목록이 매우 어마어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물론 성령님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도 우리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이 끝나는 매우 높고 강한 음표입니다.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에 대해 강의하는 로버트 W. 야브로 박사(Dr. Robert W. Yarbrough)입니다. 10회, 디모데후서 2:22-3:17.